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3.90원 상승한 1,133.60원에 마감
------	------------------------------

24일 환율은 전일대비 3.90원 상승한 1,133.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90원 상승한 1,133.60원에 개장했다.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훼손에 갭업 출발한 환율은 개장 초 상승 폭을 확대하여 1,135.20원까지 고점을 높였으나 네고물량 유입으로 상단은 제한되었다. 이후 1,130원대 중반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 오후 들어 상승폭을 일부 축소하기도 하였으나 재차 상승하며 전일대비 3.90원 상승한 1,133.6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44.50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33.60	1135.20	1131.50	1133.60	1133.5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39.59	1045.77	1039.59	1040.48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38.56	1344.17	1337.00	1339.10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6	-0.63	-1.63	-3.38
	결제환율(수입)	0.11	0.48	0.61	0.28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글로벌 리스크 오프 속 달러 강세...1,130원대 중후반 중심 등락 예상
-------	---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00원)을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33.60원) 대비 1.90원 상승한 1,135.50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훼손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증시에서는 국제유가가 6% 가까이 급등하며 에너지 관련 종목 위주로 증시에 지지력을 제공했으나 기술주 불안이 심화하자 장 막판 급락하며 하락 마감하였다. 테슬라는 4.8% 하락, 애플은 2% 하락하였다. 이에 글로벌 리스크 오프 지속되며 달러-원 환율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에 유로존 봉쇄조치 연장으로 유로화 약세를 보이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에 위안화 약세를 보이며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는 점 또한 환율 상승압력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공업 수주 등을 비롯한 월말 네고 물량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32.00 ~ 1139.33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780.4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90원 ↑
	■ 美 다우지수 : 32420.06, -3.09p(-0.0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9.2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8022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